

GRACE 선교소식

2026년 6월 GMI-GKC 선교사 현황: 58개국 301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주일예배를 마치고 빅베어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GTD 212기(여자)를 섬기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 GTD 212기에는 캔디데이트 75명과 팀 멤버 113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며,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계속되는 사역으로 다소 무리한 일정 가운데 있지만, 이번에도 많은 캔디데이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과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국에서 진행된 GGL 2기에도 큰 은혜가 있었고, 이번 GTD에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영적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유는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8). GTD 사랑의 불꽃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어느덧 GTD 사역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GTD 사역을 소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GE 주말수양회: 6/20
- Peru 목회자 컨퍼런스 및 영적대각성집회: 6/22-6/26
- 16기 선혼생 환영 예배 인도: 7/11
- 복음 통일 컨퍼런스 저녁집회 말씀인도: 7/14
- 충현 선교 교회 부흥집회: 7/17-7/19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중히 여기시고, 이 귀한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질

한인승 / 한선희 선교사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24회 AFA를 마쳤습니다.

이번 AFA는 두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첫째는 14년간 통역을 맡았던 최장로님 사모님의 뇌출혈 사건이었습니다. 최장로님이 포르투갈어 통역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부인 김 권사님께서 뇌에 출혈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저희 AFA가 있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아무 이상 없이 한달 안에 퇴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장로님께서 우리 사역지에 오셔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캔디입니다. 오기로 약속했던 교회



들은 모두가 취소가 되었고 암담해서 하나님께 캔디를 보내 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곳에서 캔디를 보내 주셨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팀 멤버 중에서 우울증을 알던 사람의 소식을 듣고 특별히 기도하면서 강권해서 참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팀 멤버들은 정말 귀합니다. 언제부터인

가 팀 멤버들이 캔디의 숫자를 뛰어 넘었고 모두가 자발적으로 많은 참여를 할 뿐 아니라 많은 도네이션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캔디들도 많은 은혜를 받고 간증을 했으며 공개적으로 다음에는 많은 캔디를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떤 캔디가 돌아가서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Sentence prayer 시간과 그룹기도 시간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돌아간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 사역으로 선교여행을 10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Espirito Santos State 옆에 있는 미나스주에서 GRACE Encounter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움과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O / 김OO 선교사

여호와 닮이

이번 단기선교는 정말 저희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했던 지원군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기선교팀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과 애국가 가사를 통해 한국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은 민족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 전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만 현장에서 하던 대적기도와 중보기도가 단기선교팀과 함께 하는 동안 활활 타오르는 듯한 힘을 우리 가족 모두가 체험했습니다.

이곳은 3부부 중 2부부가 이혼합니다. 분열과 이간질, 폭력과 (마약, 술, 담배, 성)중독, 거짓말과 사기가 너무나 만연한 문화입니다. 만약 이번에 단기선교팀이 와서 저희를 지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가족만으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군사기밀 지역 및 내몽골자치구의 외부인금지구역인 지역에서 외국인이 참석한 결혼식, 심지어 외국인 축하공연까지 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단기선교팀 방문은 핫 이슈가 되어 몽골인 인플루언서들을 통해 찬양과 위십이 퍼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정갈하게 한복을 차려 입고 9시간이나 혼례식 내내 정자세로 앉아 해같이 환한 미소로 축하해주는 영상을 몇 백만이 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 덕분에 30살이나 어려 보이는 건강미에, 은퇴 후에도 문화교류를 위해 국제사회를 누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몽골인은 태어나서 단 한번도 목장을 떠난 적이 없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선교팀 도착 당일에, 우리가 예약했던 호텔에 공안이 300여명이 묵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안대회의의 보안을 위해 몇 킬로 반경의 온라인이 통제 당했습니다. 갑자기 외국인은 4인 이상은 정식여행사의 가이드를 대동해야 한다는 법령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심방 예정이었던 목장들은 갑작스런 크고 작은 사고와 응급입원으로 단 한 곳도, 단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목장에서 5분 떨어진 고속도로 길가에 산불이 나서 소방차 14대가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처음 겪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 교통사고로 고속도로에서 결혼식장으로 이어지는 진입구가 사고차로 막혔습니다. 결혼식 당일 '맑음' 일기예보와 달리 황사가 거세게 불어 게르 지붕도 찢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는 결혼식에서 과음한 목장주 전처의 아들며느리가 피를 쿵쿵쿵 토하며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사소한 오해로 새신부가 집을 나가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장소와 사람들은 제사를 지냈던 장소 및 근처, 그리고 베스트들입니다. 단기선교기간 내내 결혼식을 중심으로 계속 실시간 중보와 기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선교 마지막 날, 원래는 공산당홍보국 국장, 공산당선전부 부장, 국제문화교류 촉진회 회장, 전 국제청장 등의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으로 수영로와 미국GMI 국제문화교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텔에 숙박중인 공안들 눈치에 책임을 서로 미루었고, 마침 주최자인 목장주의 며느리가 응급수술을 하면서 취소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하나님 나라)문화교류의 공식체결이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미국 한인은혜교회 원 장로님이 7월에 열리는 외몽골 TD(새가족 초청잔치)로 모두에게 초청장을 주기로 하고 정말 열심히 중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중국 현지 전문인 사역자들의 상황보고 및 현지 가정교회 핵심멤버의 적나라한 현황보고를 나누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권을 뺏기고, 연금을 회수당하고, 회사에서 잘립니다. 이번에 화목제 양을 잡아준 저희의 이전 목장주는 이미 여권을 뺏기고, 연금도 없습니다. 아직 40대에 회사에서 잘리는 것이 두려워 가장 먼저 저희를 손가락질하며 돌아섰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더라도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저희와 계약한 목장을 목장주가 신부측에는 신혼부부가 사용하라고 오래 전에 이미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중계약. 그리고 어제 신혼부부와 화장실이 하나 뿐인 한 집에서 살아라고 우리에게 통보한 것을 신부와 제가 거절하자, 결국 목장주는 험한 욕을 퍼붓고 저주하며 저희를 공안에 신고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교회로 선택하고 헌당식을 드린 게르와 우리만 살기로 한 목장에는 갑자기 집주인 가정, 신혼부부, 샷꾼 목자들까지 몰려와 함께 머물렀고, 수시로 공안들이 드나들게 되어 급하게 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짐을 쌀 때 집주인이 신부측에 혼수인 동물들을 인수하러 떠나 신고가 지연되었고, 저희가 떠난 뒤 공안과 함께 목장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는 것은 저희도 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영하 20~30도 겨울과 봄 5개월 동안 무료로 목장을 관리하며 결혼식에 쓸 양과 소와 돼지를 먹고 보살폈습니다. 주변 목장에도 몸 사리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꺼이 품앗이를 해 주었습니다. 황사와 담배연기에 숨도 제대로 못 쉬어도, 정수가 안 된 석회질 가득한 물을 마시며 담석이 생겨도,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며, 많은 술들을 가슴에 쏟아 부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이 더 강한 신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욕을 먹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더라도 밤을 새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단기선교의 강력함을 이번에 정말 온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상들을 쳐부수는 기도의 놀라운 파워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목도했습니다. 감사와 찬양, 위십이 얼마나 위대한 전도의 통로가 되는지 놀라움 따름입니다.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았음에도, 우리 팀 내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출국 전 대상포진을 진단받아 의사에게 출국금지 진단받은 박권사님은 현장에서 말씀하시었고, 오한으로 전기장판과 내복을 벗을 수 없던 김권사님도 덥다며 가볍게 입으셨고, 저는 담배 알려지기로 피부가 피가 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약도 바르지 않고 나왔고, 게다가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단선팀 돌아가는 날 광야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 동영상 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화목제의 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선하신 예수그리스도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라과이

김돈수 / 김미정 선교사

1996년, 척박한 땅에 믿음의 첫 씨앗을 심었던 산티피까다 교회. 우리 부부의 가장 빛나던 20년의 젊음과 뜨거운 눈물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그 제단에, 작년 12월부터 다시 임시 담임 목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후임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사임이라는 예기치 못한 시간 앞에서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들의 결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깊은 말씀 묵상으로 소그룹을 나누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들을 위로하고 각 부서가 다시 생명력 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산티피까다 교회가 흔들림 없이 굳건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생명의 방주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후임 목회자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복과 은혜의 여정에 여러분의 따뜻한 중보기도를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GMI 온라인 신학교

GMI 온라인 신학교 6기생을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 12명을 선발했습니다. 좀 더 엄격한 기준과 소명을 확인했습니다. 작년에 입학



한 5기생 33명과 합하면 올해 재학생은 45명입니다. 개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훈련의 기간을 잘 통과해야 함을 함께 결단했습니다.

GMI 온라인 신학교는 매달 한 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준비해서 발송하고 강의 진행과 과제 체크를 통해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또한 신학교 재학생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교회 리더교육, 큐티 교육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학생들이 열정적으로 학업을 감당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겨울 성경학교 준비 중

2026년 목표는 세상의 어지러움을 틈타 신앙의 견고함이 아니라 연합함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의 가슴에 복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올해의 목표는 오병이어 기적처럼 어린이 5,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겨울 성경 학교 이후 프로 프로그램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살아나야 다음 세대가 살

아 납니다. 성경 학교가 끝나면 후속 조치로 어린이 공과, 교사 공과, 설교 PPT를 3D로 만들어서 회원 교회에 제공해 주교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교회가 40개 교회이고 이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파라과이 전국을 달리며 복음을 전파했던 자동차

그동안 10여년 동안 파라과이 이 전국을 누비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달려 왔습니다. 150,000Km를 달려왔는데 돌길과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와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에어컨 이상과 엔진 소리 등의 문제로 계속 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명이 다 한듯하여 후원자님들께 말씀 드리고 자동차 교체를 위해 모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교체 모금액이 잘 모아져 다시 달릴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립니다.

가족 공동체

장남 김용욱은 한학기를 휴학하며 베트남에서 건축회사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로를 잘 결정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차남 김용준은 3학년 2학기 대학 생활을 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열심히 학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국

남OO 선교사

2025년 12월에 시작한 겨울-봄 학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학교장님의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쁨 가운데 5월 1일 B신학교 학위 수여식과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9명이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도전을 할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을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고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과 6월은 학교 방학으로 저도 잠시 쉼

을 내어 줍니다. 재충전하며 말씀에 붙들린 시간이 되며 좋은 사람들과 자연을 만나는 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맺힌 레몬 나무의 열매를 보며 수확할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열매를 맺은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세월을 견디며 아름답게 꽃을 피웠기에 기대를 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기대와 다른 행보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각자의 사정을 말하며 '이 일을 처리한 후에 따르겠습니다'라며 변명하며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의 시선으로 그들이 꽃이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할 거 같아 실망했습니다.

꽃이 떨어졌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꽃이 핀 후 꿀벌이나 곤충에 의해 수분이 완료되면, 꽃이 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나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사랑하기만을 원합니다.



국

정OO / 전OO 선교사

2026년 1국 웨스트 B도시 주의회 선거에서 국민당이 207석을 획득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주총리가 이끌던 (TMC)는 80석을 얻는데 그쳐 15년 간의 집권을 마감하는 정권 역사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전체 294석 중 과반 기준(148석)을 훌쩍 넘긴 BJP가 단독으로 주 정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 B도시 (BJC) 정권 출범 이후, 힌두 민족주의 정책과 소수 종교 탄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슬림 및 기독교 공동체는 이슬람 사원의 명칭 변경이나 길거리 기도 금지 등 강경한 조치들로 인한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 단체와 교회에도 핍박을 하면서 일부 가정교회 교인들을 폭력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3주 정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예정입니다.

청년 사역자들의 비즈니스

지금 저희 청년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렵

지만 앞으로 교회 자립을 위해서 각기 받은 달란트와 배운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업으로 에어컨 기술 센터에 13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삼성 외주 A/S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센터로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이중에서 뛰어난 청년들을 뽑아서 직접 경영하고 에어컨 A/S 체인점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에어컨 설비를 일년에 5~6개월 정도만 성수기고 비수기가 또한 6개월정도 되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은 물론 가끔 그 대책으로 중고 에어컨을 구입해서 수리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비수기 대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하나의 비즈니스 사역은 핸드폰 수리센터입니다. 이미 청년들 중에 핸드폰 수리센터를 하기 위해 3개월동안 기술 학원에 다니면서 기술을 배우고 창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핸드폰 센터에서 소정의 실습을 통해 합격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첫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창업비는 그동안 청년들이 모은 돈과 함께 모자라는 돈은 은행에 융자를 내어서 창업



을 했습니다.

교사 세미나

교사들은 매달 모여서 기도회와 함께 4주 동안 가르칠 공과를 배웁니다. 그리고 찬양과 함께 적용 학습과 복습 게임을 통해 주일학교 아이들의 말씀 양육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박 파티 전도 세미나

수박 전도 파티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세미나를 가졌지만 이 사역을 언제 해야할 지 기도 중입니다. 사역자들이 선거가 끝나고 BJP가 승리하셔서 앞으로 있을 종교 핍박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운데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멕시코

임한곤 / 이길선 선교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고 약속하신대로 증인의 삶을 살도록 또 한달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사람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부쩍 절감해 감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사를 드립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움에 달인이 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을 향해 겁 없이 달려들어 승리하였습니다. 용기란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주어지는 힘이기때 오직 성경말씀 전파에만 집중하기를 힘쓰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당대에 유명한 가말리엘 학자의 제자이며, 종교적으로 자칭 최고로 거룩하고, 리더들의 모임인 바리새인이요. 재판권을 가진 산헤드린 멤버요 재물도 많은 부자였으며., 세상



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으므로 자랑거리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이후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분이 선배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의 지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듣는 기술이 포함된 지혜입니다. 주님이 매 순간 강조하시는 것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매일 새롭게 들으면서 더 깊이 깨닫고 이 멕시코 영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멕시코에서의 지난 9년여 사역도 현지 개신교 교단과 신학교연맹 등과 손을 잡고 동반선교

를 해오므로 더욱 효과적이고 충실한 열매들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고 계시며, 모든 이의 큰 기쁨과 감사입니다.

이 같은 교회사역과 신학교사역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향기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드리는 선교헌금과 신학생들의 장학헌금 등으로 동참하시는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달 5월 2일과 11일에는 벨엘연맹신학교에서 76명과 까미노신학교에서 32명 등의 사명감이 투철한 목회자와 선교사후보생들이 졸업하여 목회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저희 내외는 멕시코 개신교연합회와 까미노신학대학교와 베델신학대학연맹으로부터 2030년까지 동반선교사역을 하기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의 종으로써 주심에 영광 돌리며, 둘째는 위의 세 기관에서 모두 높은 평점과 함께 교회사역과 신학대학 및 대학원 교수로 초청을 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테말라

최용준 / 최재순 선교사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 등 여러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늘 기도와 사랑, 그리고 물질의 헌신으로 중미 선교사역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섬기시는 교회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도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미 선교사역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카운터를 통한 니카라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림

지난 4월, 니카라과에서 인카운터(Encounter) 1기가 은혜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속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치유와 회복, 영적 새로움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인카운터를 통해 니카라과 교회들 사이에 새로운 연합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 인카운터 사역이 니카라과 교회연합 운동과 제자훈련 사역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



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복음의 문이 더욱 넓게 열려 니카라과 전역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테말라 선교센터 및 신학교의 엘살바도르 이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과테말라에 있던 선교센터와 신학교가 엘살바도르로 통합·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미 4개국(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연합사역의 중심 거점이 중미의 중심부에 위치한 엘살바도르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선교센터가 중미 복음화와 교회 개척, 교회 연합사역의 중요한 허브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복음전도사역 (Modu Campus El Salvador)의 시작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왔던 대학생 복음전도사역이 지난 4월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김도현 선교사님께서 두 명의 콜롬비아 제자 선교사를 파송해 주셨고, 현재 5명으로 구성된 저희 GMI 엘살바도르 사역자 그룹과 함께 엘살바도르 국

립대학교(Universidad de El Salvador)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벌써 수십 명의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GMI 엘살바도르 선교센터가 수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로 가득 차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자를 세우는 영적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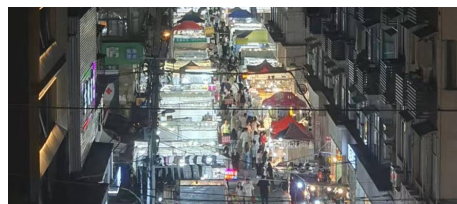
엘살바도르 은혜교회(La Gracia) 창립예배
지난 주일에는 매우 뜻깊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GMI 중미사역의 중요한 동역자로 함께 온 빅토르(Víctor) 목사님의 교회가 “엘살바도르 은혜교회(La Gracia)”로 이름을 변경하여 새로운 GMI 소속 교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사43:18)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살바도르 은혜교회가 지역 복음화는 물론 중미 선교사역의 중요한 동역 교회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국

조OO / 조OO 선교사

한번씩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지금 뭐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궁극적 목표와 방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부여된 거룩한 그 일을 하기 위해 왔으며 확고한 방향을 바라보며 정진한다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가야 하는 그 길과 방식은 나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전통적인 것들이 아닐 때가 많

아 가끔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골고다의 길을 생각합니다. 나의 만족과 이기심을 위함인가, 아니면 그분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려 놓고 가는 희생의 길인가... 소망을 품고 다소 더디더라도 성실히 정진하도록 손과 마음 모아 응원 부탁드립니다.



- 립니다.
- 기도제목**
1. BAM사업(한국문화체험관)이 속히 안정되도록
 2. 몸과 마음을 지키며 성실히 사업을 견지할 수 있도록
 3. 만민의 기회들이 변화와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4. 부부가 마음을 모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4. 군복무 중인 둘째와 6월 입대 예정인 큰 아들을 위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여정

<1분단상 153-6월호>

- 김대규 장로

주안에서 “제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삶과 길, 곧 십자가의 길에 참여하는 존재론적인 연합을 이루는 자이다. 이는 윤리적 모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에 실제로 참여하는 삶이다(갈2:20).

이러한 제자도의 본질은 구약 시편, 특히 시 22편에서 예언적으로 드러난다. 이 시편에는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에 따라 제자들이 참여케 되는 영적 패턴을 보여준다. 즉 이 22편은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통과해야 하는 제자도의 내적 구조를 가리키고 있다.

이 출발점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시22:1)이다. 십자가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이 버림은 메시아적 고난의 절정으로 대속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제자에게는 이 버림은 십자가 사건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곧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자기 부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존재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이다.

둘째로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아니라”(22:6)는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인간적 영광과 자아 중심성이 철저히 해체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단순한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재편케 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악한 무리가 내 수족을 찌르고(16절), 내 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18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무슨 메시징인가? 참 제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이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막혔다고 했다(갈2:20). 제자도는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실존적으로 연합된 자로 살아야 함을 말한다.

넷째로는 두 가지 면이 있다. 주님의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19절)라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 주셨다는 점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의 선포로 전환된 점이다(21,22절). 이는 제자도가 감정이나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지속적인 신뢰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참된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신뢰로 나타난다.

다섯째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22:22)의 선언은 참 제자는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공동체 안에서 선포와 증언으로 확장된다. 더 나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27절)와 같이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구속사적인 소명을 다해야 함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제자도의 완성은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통치에 참여하는 데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약은 제자도의 완성된 형태를 “이기는 자”로 규정한다(계23장, 2 1:7). 이 개념은 신학적으로 자녀(τέκνον)에서 아들(υἱός)로의 성숙, 그리고 궁극적으로 상속에 참여하는 존재로의 완성을 의미한다. 이는 신분의 변화라기보다 동일한 관계 안에서의 성숙이며, 완성이다.

성경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함이라”(롬

8:17)고 말하며,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딤후2:12)이라고 증언한다. 이 흐름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완성된 자를 “이기는 자”로 부른다. 곧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계 21:7)고 말씀한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단순히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세상과 악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자를 의미한다. 그는 단순히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하며 통치에 참여하는 종말론적 제자를 가르킨다(계 22:5).

결론적으로, 이 22편은 단순한 고난의 시가 아니라, 메시아의 십자가와 제자도의 구조를 동시에 드러내는 말씀이다. 제자도는 단순한 신앙의 선택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여 형성되는 존재의 여정이다. 그래서 이 시를 ‘십자가의 시’라고도 한다.

하나님은 단지 “믿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도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며 “이기는 자”로 서야 한다. 그 길은 험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동시에 영광과 상속과 통치로 이어지는 길이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미국 남OO 선교사

1. 방학동안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주일 어린이 사역과 모자란 언어를 익히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으며 알차고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2. 6월에 비자 연장이 있습니다. 순적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3. 구체적인 비전을 주시고 잘 준비하여 다음 스텝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4. 현지교회와 사역자들이 세계선교의 파트너로 세계선교 담당하도록
5. 신학교 건물이 열악합니다. 무더위가 그대로 느껴지는 건물 안이라 천장에 단열시공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필요한 재정과 도움 사람들을 붙여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미국 정OO / 전OO 선교사

1. 지금 시급한 기도제목은 각 교회마다 앞으로 BJP 당이 종교 핍박과 함께 사역 전반적인 방해가 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대책을 세우고 각 교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 할 때입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저희 성도들의 믿음이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수박 전도 파티를 해야하는데 지금의 현지 상황 속에 언제 이 사역을 시작해야할 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청년들이 믿음으로 하는 비즈니스 사역 위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과테말라 최용준 / 최재순 선교사

1. 기도와 말씀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누리는 선교사가 되도록
2. GMI 중미 선교센터가 중미 선교부흥의 원천지이자 영적 허브가 되도록
3. 2026년 GMI 신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4. 대학생 복음전도사역(Modu Campus El Salvador)과 청년사역 가운데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5. 복음의 문이 열린 니카라과 교회연합 사역 위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6. 새롭게 세워진 과테말라.엘살바도르 은혜교회(La Gracia)가 건강하게 성장하며 부흥과 연합을 이루도록



브라질 한인승 / 한선희 선교사

1. 10월 미나스 주에서 그리이스 인카운터 잘 감당하도록
2. 제자 양육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 지도록
3. 저희 내외의 영육 간에 건강을 위하여
4. 주님께서 주신 사명 완주 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멕시코 임한곤 / 이길선 선교사

1.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와 신학교에서 잘 섬기도록 치안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로 사역할 수 있도록
2. 까미노신학교 이사회원 2인이 총원되도록/ 사람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좋고 신실한 일꾼들이 선임되도록
3. 까미노교회 소속된 교회들에서 금년 1월부터 집중하고 있는 새 신자반과 성숙반을 통해서, 전도와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려드리도록
4. 산타페교회의 오텔로목사와 호르헤(심방과 청년지도) 전도사, 까를로스(부인회담당)와 까렌 전도사(영유아부 담당)가 말씀과 성령충만으로 충만하여 사역 잘 하도록
5. 북중미월드컵기간 동안에 전도대원들이 활발하게 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케냐 인카운터 1기 (6/21-6/30)
S/L: 설성훈 목사
디렉터: 백준승 장로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 페루 목회자 세미나 & 영적 대각성 집회 (6/23-6/25)
강사: 한기홍 담임목사
중남미 권역: 장준영 장로
- 필리핀 Grace camp & 개척선교 (6/23-6/27)
S/L: 김홍권 목사
리더: 이창석 집사 (213-598-8845)
- 콜롬비아 AFA 6기 (7/5-7/8)
S/L: 송중호 목사
렉터: 최은용 집사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 프레즈노 몽족 선교 (7/5-7/8)
S/L: 성현준 목사
리더: 류영선 집사
문의: 제임스 송 집사 (714-335-6556)
-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의료선교 (7/16-7/19)
디렉터: 김영수 장로
팀장: 제임스 황 집사
문의: 조셉 한 집사 (714-213-5033)

- 과테말라 인카운터 4기 (7/18-7/25)
S/L: 변재령 목사
렉터: 정창희 집사
문의: 장경옥 집사(714-504-5140)

- 페루 아야쿠초 인카운터 1기 (8/16-8/23)
S/L: 이창석 목사
디렉터: 이재근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O/T: 6/15 (월), 119호, 7pm

- 몽골 TD 2기 (8/29-9/8)
S/L: 한기홍 목사
렉터: 스카이 박 집사
문의: 858-335-9415
T/M: 6/27(토), VC119, 9am

- 캄보디아 인카운터 1기 (9/6-9/14)
S/L: 설성훈 목사
디렉터: 케빈 김 집사
문의: 로이 김 집사 (213-999-1737)
O/T: 6/16(화), 웨딩채플, 7pm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